

# 서 평 지

서평 제목	실존, 내 안의 이방인과의 대화	참가번호	2024-31
도 서 명	변신: 단편집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p>“우리는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팀 윌슨(Tim Wilson, 2002)이 남긴 저 말은 「변신」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가 생전에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작품 속에 담아낼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 「변신」은 20세기 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체제, 특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양상을 초현실적 상상과 실존에 대한 고민을 동원하여 그리고 있다. 「변신」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도 상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소외를 노동력 상실로 인한 사회의 버림으로 보는 프롤레타리아식 해석부터 주인공을 향한 가족의 태도에 주목하는 가족 담론의 해석까지 모두 저자가 폭로하고자 한 모순을 일관성 있게 끌어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선 두 관점을 참조하여 ‘실존적 차원’에서 「변신」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변신」은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상황뿐 아니라 그 이전, 즉 유능한 세일즈맨이었던 시기부터 주인공과 가족들에게 존재해왔던 실존의 위기를 잘 보여주며, 이는 작품이 출간된 지 백 년 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지구화와 더불어 초연결주의로 팽창하는 세계 속 거대한 이해관계에 놓인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실존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변신」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유발하는 사회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의미 있는 해석이 되리라 짐작한다.</p> <p>그레고르는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판원이다. 그는 어느 날 특별한 이유 없이 거대한 갑충으로 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외양은 끔찍하나 의식 상태는 여전한 그는 벌레가 된 상황에서도 가족과 직장의 일에 신경을 쓴다. 가족들은 그가 벌레로 변한 사건을 철저한 비극으로 인식하며 여동생 그레테만이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갖다주는 등의 관심을 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구성원 전체가 벌레로 변한 그에게 무관심해지고, 그가 방문을 나섰다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는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그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레고르의 경제력 상실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태해지자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아버지는 활기를 띠고 일을 시작한다. 여동생과 어머니도 사회에 나가 노동을 시작한다.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이 그레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나서게 되고, 결국 가족의 일을 휘방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방안으로 쫓겨 들어가 목숨을 다하게 된다.</p> <p>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하는 초현실적인 사태를 겪고 나서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려하며 경제력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자책한다. 이는 그레고르가 가족을 책임지는 경제적 기능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실존에 대한 고민을 대신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는 외판원으로 일하며 삶과 존재의 이유를 성찰하기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자신의 능력에 주목했다. 이처럼 실존</p>			

서평 제목	실존, 내 안의 이방인과의 대화	참가번호	2024-31
<p>을 방치해온 그는 벌레로 변한 후 내면적 갈등에 휘말리는데, 바로 벌레가 되지 않으려는 실존적 의지와의 갈등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 ~ 1980)는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했으며, 실존은 존재 양식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레고르 또한 ‘벌레’라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실존적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마치 그가 인간일 적에 걸어 놓았던 액자를 가족으로부터 지켜내려던 것처럼. 그러나 주변의 많은 요소는 그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양상을 보인다.</p>			
<p>반면 그레고르의 가족, 특히 여동생과 아버지는 비극으로부터 존재의 필요성을 확인받는다. 그레고르의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어 유지되어오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다른 가족들의 손에 넘겨졌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여동생과 아버지는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대신한 어머니에게 울먹이는 장면이나 늘 무기력하던 아버지가 정돈된 모습으로 유니폼을 벗지 않는 장면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존을 성취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 능력의 상실 여부에서 오는 인간의 가치 판단에 기반해 있다. 즉, 모순된 체제에서 경제적 능력과 함께 존재의 의미까지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벌레로 변하기 전의 그레고르처럼 실존을 착각한 채 사회 속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몰려난 그레고르가 실존의 위기를 인식하는 현상과 대응되어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퇴색시키는 현실이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속에도 내재되어 있음을 상징한다.</p>			
<p>이렇듯 「변신」에 등장하는 실존 위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다. 저자인 프란츠 카프카가 은연중에 비판하고자 한 사회 체제는 오늘날에도 인간의 삶에 깊이 침투하여 실존의 방치를 유발하고 있다.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잣대를 부여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집단 비의지에 귀속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자유는 고립과 두려움과 함께 온다.”라는 에리히 프롬(1900 ~ 1980)의 말처럼 우리는 「변신」의 등장인물들이 겪은 실존 위기를 온전히 대면하고 끊임없이 극복해야지만 사회의 모순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존재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변신」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의 내면에 잠재돼있는 실존에 대한 갈등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의미 있는 작품이다.</p>			